

美 네바다 여론조사 ‘힐러리·샌더스 45:45’

힐러리 강세 지역... 샌더스 선전

■ 네바다주 민주당 대선주자 지지율

히스패닉 유권자 캐스팅보트로

조사기관·날짜	힐러리	샌더스
워싱턴프리비콘 (2016.2.12)	45%	45%
그래비스 (2015.12.23~27)	50%	27%

이민개혁 공약 승패 가를 듯

미국 민주당 대선 3차 경선전인 네바다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도 돌풍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보수적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군사전문매체인 워싱턴프리비콘이 타깃포인트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12일(현지시각) 내놓은 조사 결과, 네바다주에서 두 사람의 지지율은 45%로 동일했다.

여론조사기관 그래비스가 한 달 전(12월23~27일) 실시한 조사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50%, 샌더스 의원이 27%였음을 고려하면 샌더스 의원의 상당한 기세로 추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쟁자인 샌더스 의원이 첫 경선전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선전을 펼치고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압승한 여세를 몰아 네바다주에서도 클린턴 전 장

관을 바짝 추격할 것.

네바다 주는 클린턴 전 장관의 강세 지역으로 추정됐다. 히스패닉계 유권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라스베이거스로 유명한 서부 네바다는 미국이 1848년 멕시코로부터 획득한 땅이다. 인구의 27%, 유권자의 16% 가량이 히스패닉.

1994년에는 전체 유권자의 90% 이상이 백인이었지만 2012년 67%로 떨어졌다. 반면 히스패닉 유권자는 5%에서 16%로 증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과 2012년 대선에서 네바다 주 히스패닉 유권자로부터 각각 67%, 71%의 표표를 얻었다.

히스패닉 유권자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이민개혁. 클린턴 전 장관이 지난해 대선 출마선언 후 첫 선거유세를 위해 네바다주를 방문해 어떠한 이민 개혁도 불법 체류



13일(현지시각) 미국 네바다주에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민주당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왼쪽)과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 /연합뉴스



이민자들이 ‘완전하고 평등한’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를 의식해서다.

클린턴 캠프는 네바다 주가 상대적으로

백인 유권자의 비율이 높고 당원만 투표하는 코커스라는 점 때문에 샌더스 의원이 다시 치고올라올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스파이더맨’ 첫 등장 만화책

경매가 최소 4억8000만원



세계 어린이와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웅 ‘스파이더맨’이 세상에 첫선을 보였던 만화잡지가 경매에서 고가에 팔릴 전망이다.

경매를 주관하는 미국 ‘헤리티지 옥션’은 “오는 18일(이하 현지시각) 경매에 나올 1962년 판 ‘어메이징 판타지’ 15호(사진)는 최소 40만 달러(약 4억8000만 원)에 팔릴 것”이라고 14일 예상했다.

어메이징 판타지는 미국 마블코믹스가 1961~1962년에 발간한 만화 잡지다. 가장 유명한 호수는 스파이더맨이 처음 등장한 15호다. 어메이징 판타지 15호는 발간 당시 12센트(약 145원)였다.

이 잡지의 소유주 월터 아코보스키(60)는 1980년 1200달러(약 145만 원)를 주고 이를 구매해 지금까지 은행 개인연금에 보관하며 지극 정성을 들였다.

헤리티지 옥션의 앨런은 “어메이징 판타지 15호는 4000~5000 부가량 인쇄됐는데 아코보스키의 책은 최상급”이라며 “보존 상태가 10점 만점에 9.4점 정도라서 매우 특별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멕시코 간 프란치스코 교황 “마약으로 삶 파괴 안된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14일(현지시각) 멕시코 사회의 불평등과 부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부자들이 돈의 유혹과 허영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충고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멕시코 내 대표적인 빈민 지역인 에카테펙에서 열린 미사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으로부터 나온 빵을 먹는 것과 같다”며 부자와 지도층이 이기심과 물질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탐욕으로부터 얻어진) 부는 고통의 맛과 쓴맛이 나는 빵”이라며 “부패한 사회와 가족이 이러한 빵을 아이들에게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 멕시코의 사제들이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가난한 자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을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지도층과 부자들의 허영심과 자만심을 지적하며 시민이 꿈을 이루고자 이민을 갈 필요가 없다고 멕시코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는 또 마약 밀매자들을 ‘죽음의 거래상’이라고 부르며 “멕시코가 마약으로 삶이 파괴돼 탄식하는 남녀노소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멕시코에서는 2006년 이후 최근까지 마약과 폭력 등으로 10만 명이 숨지고, 2만 7000 명이 실종됐다. 특히 교황이 미사를 집전한 에카테펙은 마약거래, 납치, 조직폭력,

성범죄 발생 등이 일상화한 대표적인 빈민 지역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멕시코 지도층과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은 온화했지만, 직접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미사에 참석한 많은 이들과 공공선 실현과 거리가 먼 정치지도자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WP는 전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사에서 악마와의 대화는 없다며 오직 신만이 악마를 물리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에카테펙을 비롯해 멕시코 전역에서 나타난 이상 승배에 대해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멕시코인 일부는 ‘산타 무에르테’(죽음의 신)라는 죽음의 신을 숭배하고 있다.

에카테펙 미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새간의 멕시코 방문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30만 명이 이상이 몰렸다.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14일(현지시각) 범주가 만연한 것으로 악명 높은 멕시코시티 외곽 에카테펙에서 야외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19 시인 사마상여

사마상여(司馬相如, BC 179~117)는 사천성 성도 출신으로 자는 자경이다. 한 무제때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한부(漢賦)의 황금시대를 연 인물로 평가된다.

그의 본명은 견자인데 전국시대의 유명한 재상이었던 인상여를 존경하여 상여로 개칭했다고 한다. 경제대 황제를 호위한 기마병으로 복무한 적이 있다. 문학을 사랑한 양효왕이 수도 장안을 방문하자 그의 식객이 되었고 저명한 문인들과 교류하였다. 효왕 사망 후에는 낙향하여 사천성 임공현 현령으로 있는 친구 왕길에게 위탁하였다.

그가 유명해진 것은 음악에 조예가 깊은 탁문군과의 사랑이야기 때문이다. 그녀는 임공현의 거부인 탁왕손의 여식으로 일찍이 남편을 잃고 친정에 돌아온 과부였다. 그는 왕길에게 그녀와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왕길은 그를 자신의 관사로 이주

한다는 흥분당허(紅粉當壚)의 고사가 탄생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탁왕손은 부득이 둘의 결혼을 인정하고 상당한 재산을 주었다.

평소 문학에 심취한 무제는 어느날 그가 쓴 자허부(子虛賦)를 읽고 크게 감동하여 “집은 어찌 이 사람과 같은 시대에 살 수 없을까”라고 말하였다. 무제는 그를 친견하였다. 그는 친견 자리에서 “자허부는 제후를 위해 쓴 것으로 기백이 협소하다. 영명한 황제를 위해 한편의 글을 올리고 싶다”고 말하고 상림부를 지어 바쳤다. 그는 중랑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동방삭·매교·임조 등과 함께 무제의 대표적 인물이 되었다. ‘대인부’ ‘애진이 제부’ 등이 대표적이다.

서남쪽 지방의 이민족이 한나라에 복속해오자 무제는 그를 특사로 파견해 호의를 표했다. 사절단을 이끌고 장안을 출발해 사천성을 경유하였다. 장인 탁왕손은 가난한 사위가 귀인이 되어 나타나자 자신의 허물을 사하고

漢詩 황금시대 연 로맨티스트

시키고 매일 손수 그의 거처를 방문하고 극진히 대접하였다. 소문은 얼마 안되어 탁왕손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왕길에게 사마상여의 사람됨을 물었다.

왕길은 그의 재능과 집안 등을 과장하여 탁왕손의 관심을 끌었다. 탁왕손은 그를 자신의 집 연회에 정중히 초대했지만 사마상여는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완곡히 사양했다. 탁왕손은 간곡히 참석해줄 것을 사정하였고 그는 마지못해 참석하였다. 호기심이 발동한 탁문군은 병풍 뒤에 숨어 몰래 훑쳐보았다.

그는 거문고로 봉구황(鳳求凰)이라는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곡에는 누군가를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고 음율에 밝은 그녀는 그 은근한 뜻을 금방 알아챘다. 이후 그는 그녀의 허락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그녀에게 전했다. 그녀는 과부의 신분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를 찾아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였다. 다음날 둘은 그의 고향인 성도로 출행하였다. 탁문군의 유명한 심야의 도끼 일화다.

빈털터리인 사마상여는 임공현으로 돌아와 작은 술집을 차렸다. 그는 손님들을 접대하고 그녀는 손수 술을 팔았다. 귀한 몸으로 가난한 생활을 함께

했다고 한다.

그의 시문은 화려하고 기상이 넘쳐났는데 이것이 한부의 일반적 특징이 되었다. 반면에 「장무부」는 지아비에 게 버림받은 아내의 슬픔을 완곡하게 버림받은 아내의 슬픔을 완곡하게 묘사했다. 무제가 이 글을 읽고 크게 감동받아 사랑이 식은 진 황후를 다시 총애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그가 나중에 한 소녀를 점으로 들이려고 하자 탁문군은 벽두움이란 시를 지었는데 “남이 다른 마음을 품었으니 서로 헤어져야 하겠네”라는 구절이 있다. 그가 이 시를 읽고 크게 깨우쳐 점을 맞이하려는 계획을 접고 평생 탁문군과 해로 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총 29편의 부를 지었지만 현재는 4편이 남아있다. 말년에 건강을 해쳐 시작하고 무릉으로 이사갔다. 병인은 당뇨병으로 보인다. 당나라의 시성 두보는 시 「궁대」에서 사마상여 부부의 사랑을 “탁문군이 요즘 새로이 과부되어 호화스러운 집 붉은 문을 닫았더니 사마상여 재주 뛰어나, 은하수에 견우처럼 두 별 만나듯 했구나”와 같이 묘사했다. 사마천은 「사마상여 열전」에서 “상여의 글에는 공허한 문자와 함부로 하는 말이 많으나 그 주된 뜻은 절약과 검소함으로 귀결된다”고 평하였다.

지리산, 온천지구 모텔 매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현재 휴업상태,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모든업종 개발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3천만원
- 융자 - 6억 3천만원 포함
-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리모델링 후 (3억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오피스텔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건물 중 701호(7층전체) 130평(실평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융자 - 3억 6천만원 포함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3백만원 임대중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수기동 제1오피스텔
- 20층 중 20층, 76평
- 대형주차장 완비 주차 5대 무료
- 사무실 전용
- 매매-2억2천만원
- 투자기차 좋음

주인직거래 H. 010-3605-5000